▲ 화원군 묘하의 모원재

대개 그 이상이 없었다. 그 후 공이 귀국하여서의 여러 환력宦歷과 행적은 전하는 것이 없다. 다만 조정의 추요부樞要府로서 왕명의 출납과 궁궐의 숙위 및 군기軍機 등의 일을 맡는 밀직사密直司의 요직에 출사出仕하여 계속 내직內職에만 있었고, 고려말 왕권이 흔들려 우왕좌왕 혼란을 빚으며 사직社稷이 위태롭던 계기에 요신要臣으로서 국면에 관계되는 역할을 하여 추성정책안사공신推誠定策安社功臣에 녹훈錄勳되고 품계品階가 1품 삼중대광三重大匡에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의 재추宰樞에 이르러 화원군花原君으로 책봉되었음을 알 뿐인데, 이 봉군封君은 부친의 것을 습봉襲封함이 아니고 본인의 공훈으로 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선고 문탄공의 군호가 예천부원군이므로 이를 습봉하기로 하면 장자인 공이 당연히 받았어야 할 터인데 부친의 군호를 습봉하기 전에 공이 먼저 공신에 책봉되고 이에 따라 봉군이 되는 바람에 부친의 군호와 겹치지 않게 화원花原으로 정해지고, 부친의 사후에 세습케 될 예천의 군호는 공의 차남 계용季容에게 내려가 그 차남이 예천군醴泉君으로 책봉되고 있음이 보서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은 부친의 후광을 받아 그 군호를 습봉하기 앞서 자력으로 사직社稷, 즉 국가를 안정케 한 안사공신安社功臣에 올라 봉군이 되었던 것이다. 그 다음은 사후에 받은 시호가 충헌忠憲임을 알 뿐이다. 공의 아호가 유암柳菴인 것에 대해서도 그 내력을 유추해볼 근거가 없다. 다만 고려말에 유항柳巷 등 버들 유柳자를 쓴 아호가 있었고, 유암은 버들이 있는 집, 유항은 버들이 많은 마을골목 정도이겠으니 그 살던 곳이 버들과 관계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개 버들은 깊거나 높은 산곡이 아닌 평야지대 천변 같은 데에 식생하는 나무이다. 공이 만년에 어떤 일로 실의하여 호남 김제 평야지대의 금구金溝 땅에 낙남하여 혹시 버드나무와 더불어 시름을 잊고자 하였던 것은 아닐까. 어리석고 부질없는 망상일지 모르나 아득히 먼 일을 어찌 빙거해볼 길이 없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대략 헤아려보건대, 화원군의 초중년기는 그 선고 문탄공이 원나라 황실과 조정에 여러 일로 깊은 연관이 있었으므로 비교적 환로가 순탄하였고 귀국해서도 격동의 정변 중에 중정을 굳건히 지키며 조정의 재추 반열에서 여러 국사를 처리하였을 것으로 추정함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장년기에 접어들면서는 고려의 종주국 원나라가 홍건적紅巾賊 등의 반란과 황실 내부 및 조정의 권력다툼으로 급격한 붕괴와 멸망의 길에서 비틀거리고 고려 또한 홍건적 잔당의 대규모 침구에 이은 공민왕의 시해 등을 겪으며 급속한 쇠퇴의 혼란을 거듭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고려 조정에서는 새로운 친명親明 세력이 부상하여 친원親元 세력은 그 입지를 잃게 되었다. 공이 본디는 친원에 속하였겠지만 그 사위 목은牧隱 이색李穡 등과 더불어 배원정책排元政策을 쓰는 공민왕을 세우는 데 역할을 했을 것이므로 친원세력으로서 조정에서 배척당했을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어째서 공이 서울 개경에서 이처럼 먼 호남의 금구에까지 낙향하여 쓸쓸한 만년을 보낸 것일까. 이는 불초와 같은 필부의 지식이나 상상력으로 미칠 수 없는 바이겠다.

▲ 언덕 아래에서 올려다본 화원군 묘역

화원군의 후계後系

화원군은 외명부外命婦의 작호가 미상인 대부인大夫人 칠원윤씨漆原尹氏 전서典書 길손吉孫의 딸을 맞이하여 2남5녀를 두시었다. 그 본손과 외손이 30인으로 손자와 손서孫壻가 다 3품 이상 벼슬로 현달하였고 특히 그 넷째사위 목은牧隱 이색李穡은 고려말의 대학자로 양촌陽村 권근權近·춘정春亭 변계량卞季良 등의 후학을 배출하여 조선왕조의 기틀을 이루게 하였다. 계씨季氏 문절공文節公 중화仲和는 공민왕초에 문과를 하여 우왕禑王 때에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에 이르고 조선 태조 때 판문하부사判門下府事, 태종 때에 83세 고령으로 영의정에 오를만큼 청백리로서 덕망이 높았다. 화원군의 형제와 5인의 매서妹壻가 모두 시중侍中·백伯·군君 등의 관작으로 세인이 '일가구정승一家九政丞'이라 하여 그 삼종숙三從叔인 추밀공파 국재菊齋 문정공文正公 권보權溥의 '일가구봉군一家九封君'에 이어 쌍벽을 이루었다. 그리고 공의 아들 대에는 내외종內外從 39인이 만든 '4촌회계四寸會契'가 있어 유명한데, 39인의 4촌 내외종이 거의 당상관堂上官 벼슬이었다.

화원군의 5녀서五女壻 가운데 맏이는 정선인旌善人 재신宰臣 전분全賁이며 그 아들은 판서 오륜五倫, 오돈五惇, 사위는 종부령宗簿令 윤보尹輔이다. 둘째 유혜방柳惠芳은 지군사知郡事이고 그 아들은 정당문학政堂文學 향珦, 중추中樞 호瑚, 승통僧統 의호義瑚, 사위는 판사判事 신운길辛云吉, 판사判事 윤인걸尹仁傑, 삼사좌윤三司左尹 이백승李伯升, 삼사부사三司副使 안득수安得壽이다. 셋째사위 여흥驪興 민근閔瑾은 여산군驪山君이고 아들은 전교령典敎令 중립中立, 판서 중리中理, 사위는 김관도金觀道이다. 넷째사위는 한산인韓山人 가정稼亭 문효공文孝公 이곡李穀의 아들 목은牧隱 한산백韓山伯 문정공文靖公 이색李穡이고 그 아들은 문과 장원文科壯元 밀직사密直事 종덕種德, 문과 밀직사 종학種學, 문과 지중추知中樞 종선種善이다. 막내 사위 김윤철金允轍은 전서典書이고 그 아들은 염廉·소蘇·휴 이다.

장자長子 종정공宗正公 사종嗣宗 : 화원군의 장자로서 복야공의 5대종손이 되고 관직은 정순대부正順大夫로서 판종정시사判宗正簿寺事에 이르렀다. 정순대부正順大夫는 고려 공민왕조에 정3품 상, 조선조로 치면 정2품 경대부卿大夫 품계이고 종부시는 왕실의 족보, 종실宗室에 대한 사무 등을 보는 관청으로서 역시 고려 공민왕조에 설치했던 관아이다. 그 밖에사적이 일체 미상이어서 계고할 수가 없으나 조선조에 출사한 기록이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대개 옛사람의 사후 신주神主나 족보에 생시 최후의 관작을 쓰는 법이므로 공은 고려조의 소멸과 함께 문탄공과 화원군 같은 고려 훈벌의 종주宗胄로서 그 선고와 함께 당신의 대까지는 새 왕조에 수절불사守節不仕를 한 것으로 추측된다. 공은 안동권씨 복야공파 15세 기파조岐派祖의 한 분으로 종정공宗正公으로 호칭되며 곧 종정공파의 파조派祖이다.

배위配位는 벽진이씨碧珍李氏 참의參議 군상君常의 딸이고 묘소는 실전이다. 경북 의성의 흥국산興國山에 묘소가 있다는 전설에 따라 2001년 봄 후손 유사들이 심험尋驗에 나서 의성군 다인면 월송리月松里 흥국산의 주인 없는 고총古塚을 발굴조사하였다. 이때 이 고총이 공의 묘소라 함에 있어 그 비정比定은 가할 수 있으나 아무런 확증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2008년 그 아우 예천군醴泉君 계용季容의 묘소가 있는 예천군 지보면 신풍리 송라동松蘿洞 화봉산花峰山에 제단祭壇을 설하여 음력 10월 2일을 정일定日로 향사를 받들고 있다. 4남2녀를 두니 장남 집중執中은 전서典書·판사判事, 다음 집경執經은 지신사知申事, 다음 집지執智는 판예빈시사判禮賓寺事, 다음 집덕執德은 군기감정軍器監正이다. 사위 해평海平 윤가관尹可觀은 판밀직사사判密直司事이고 그

7면으로 계속

추동애권선생헌조만追東厓權先生憲祖輓 :

동애 권헌조선생께 뒤늦게 드리는 만사輓詞

송헌고택차옹생松軒古宅此翁生 : 송석헌松石軒 고택에서 이 어른 태어나
충효수제역진성忠孝修齊亦盡誠 : 충효와 수신제가로 정성을 다했는데
천탈현인하내속天奪賢人何乃速 : 하늘이 어진이 빼앗기 어찌 그리 빠른지
미능임광불승정未能臨壙不勝情 : 장지葬地에 이르지 못한 마음 이길 수 없네

행의방원부성진行誼方圓賦性眞 : 바르고 원만한 행의 참되이 타고난 품성
치가처족출분진治家處族出紛塵 : 집안에 문중 다스려 속된 티끌 씻으니
고금영내여옹기顧今嶺內如翁幾 : 돌아보건대 영남에 지금 이같은 이 몇인가
위곡오림자탄빈爲哭吾林自嘆頻 : 우리 유림을 곡하며 자탄하기 빈번하네

개제강명의지량愷悌剛明意志良 : 화락하고 굳세며 밝은 의지 또한 어질어
안빈낙도호문장安貧樂道好文章 : 곤궁에 도의 즐기며 문장을 좋아하되
팔순근신종가세八旬謹愼從家勢 : 팔순을 삼가며 신중히 집안 형세 좇은 바
성예유풍불감망聲譽儒風不敢忘 : 선비 풍모 그 성예聲譽 잊을 수 없겠네

온자품성호용자溫慈稟性好容姿 : 온화하고 자애로운 품성에 좋은 용모로
선업서농처사이先業書農處士怡 : 글 농사 유업받들어 처사處士의 삶 즐기며
겸덕다교향리우謙德多交鄕里友 : 겸손의 덕으로 향리의 벗 많이도 사귀었는데
수지이질경난의誰知罹疾竟難醫 : 질환에 필경 의술 없을 줄 뉘 알았으리오

절조침잠수학유節操沈潛樹壑遊 : 지조에 깊이 잠겨 임천林泉에 노닐면서
만년한조동남주晩年翰藻動南州 : 만년에 문사文詞로 영남지방 움직이더니
인하예장청산리忍何禮葬靑山裏 : 어찌 차마 푸른 산속에 예장이 되시었나
수수애사누만모數首哀詞淚滿眸 : 몇 수 애달픈 만사에 눈물이 넘치도다

경인庚寅 지월至月(동짓달) 8일 족종族從 상목相穆 재배추만再拜追輓